

지역 소식통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읍면동등에 신청

정읍시(시장 이화수)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수요를 조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단, 취학아동 및 양육 농가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최대 3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3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의 해 실무회의 개최

고창군은 지난 24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과장 팀장 등 30여명과 함께 5층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운영을 위해 세부사업과 예산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컨셉 토의가 이뤄졌다.

앞서 고창군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추진을 공식화 하고, 지난 18일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개최 및 콘텐츠 강화 △관광 인프라 및 수용체 개선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 △민·관 협력 집중 활성화 등 핵심전략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얼지 않는 도로' 만든다

고창군, 석정온천-웰파크시티 상습 결빙 위험구간 열선설치사업 내년 추진 확정

고창군 고창읍 석정온천에서 웰파크 시티까지 이어지는 오르막길에 얼지 않는 도로로 변신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 상습 결빙 위험구간에 대한 열선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열선설치 구간은 석정온천-석정웰파크 시티(힐링카운터)간 약 0.5km가 해당된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埋設)하는 발열 케이블 장치다. 도로

표면의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전기를 흘려 눈을 녹인다. 사람이 일일이 제설용 열화칼을 뿌리지 않아도 돼 조기 대응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열화칼처럼 차량 하부를 부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black ice) 현상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현재 고창군에선 △청동길(문화체육

관~유진청하아파트) 200m △동산길(성산아파트 진입로)100m △남정2길(연흥세탁소~셋방유치원) 100m 등에 설치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겨울철 상습적 결빙구간에 대해 열선설치사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도시 만든다

2023년도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전북도 공모 선정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2023년도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1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들여 시민 접근성이 쉬운 도심지(부전동 일원)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400㎡ 규모에 놀이와 휴게 시설 등이 들어서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대는 1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동물보호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중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20억 원을 투입해 입양센터와 펫마켓 교육장, 펫 카페,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해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시는 정읍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 들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완화를 물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주민공청회 열어

국가생태관광지역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 콘텐츠 개발

정읍시는 25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내장호 주변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공원해제지역을 포함한 내장호 일원 발전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에는 이화수 시장과 시 관계

자를 비롯해 내장상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환경·수질 전문가와 관광자원 개발·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그동안의 용역성과 발표와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그동안의 용역성과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성과의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개발사업의 필요성 못지않게 생태·자연환경의 보존·유지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강조했다. 시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역수행에 반영, 남은 기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내장호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아우를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춰 용역수행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내장호와 그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허는 한 쪽에 치우친 없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셜다이닝 '청춘식탁' 성료

부안군 청년행복UP센터, 청년·지역 주민 50여명과 함께 진행

부안군은 최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청년행복UP 소셜다이닝 '청춘식탁'을 청년, 지역 주민 등 50여명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청춘식탁은 11월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되는 행사이며, 그 중 이번 3회차는 '힐링캠핑 in 부안'을 주제로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하였다. 이번 소셜다이닝은 캠핑 관련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캠핑음식을 나누며 진행되었다. 평소 캠핑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 회차들과 다르게 처음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새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청년들이 직접 만든 나무 화로를 가져오는 등 캠핑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인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안=김석진기자



관내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카카오톡 부안청년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남은 회차는 캠퍼 프로젝트 '나' 알아가기 등 청년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청년의 지역정착과 청년들이 지속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필요하다"며 "부안군만의 청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이정석 신임 부안군 부군수 취임

이정석 신임 부안군 부군수가 지난 21일 직원 상례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정석 부군수는 1991년 김제 시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라북도 체전준비단 체전기획팀장, 관광총괄과 토탈관 광팀장, 관광총괄과장, 일자리경제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부안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평소 진취적인 사고와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은 이정석 부군수가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안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석 부군수는 "민선 8기 중요한 시점에 부안군 부군수로 부임하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군정 목표인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하기 위해 권익현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스마트 행정안내 게시판' 운영 시작

정읍시가 정읍시청 청사 내 '스마트 행정안내 게시판'을 설치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 행정안내 게시판'은 법정 고시·공고부터 동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시청 소식과 각종 생활 밀착 정보 등을 시민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로 보여주는 전자 게시판이다. 시는 유동 인구와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시 의회관 1층 입구에 스마트 행정안내 게시판을 설치했다. 게시판은 70인치 1면과 55인치 2면 총 3면으로 구성됐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홍보게

시물은 게시물당 7초씩 자동으로 반복 표출한다. 사전에 설정한 홍보 일이나 주기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와 삭제가 자동으로 이뤄져 관리가 쉽고, 게시물 숫자와 관계없이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종이 문서와 종이 포스터를 대체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제작과 이던 각종 포스터와 문서도 게시판 규격에 맞춰 관리됨에 따라 미관과 시인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0인치 고시·공고란은 해당 화면을 터치하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된 큰 글자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